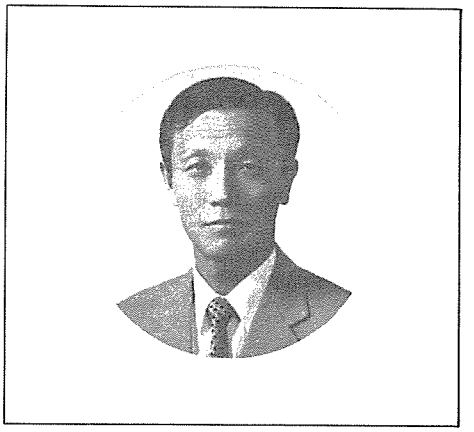
學會탐방

空氣調和冷凍工学会 崔相弘회장과 함께

技術人力 저변확대에 주력할터

우수인력 공동활용방안 모색도



崔 相 弘 회장

『空気調和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면 되는 직접 冷·煖房에서부터 쾌적한 실내공기의 温·濕度조절, 그리고 먼지없고 공해없는 이상적인 환경조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안락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崔相弘회장(韓一기술연구소 대표)은 사람들이 文明生活을 누릴수록 이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산업분야와 같이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설비기술의 고도화도 요구되고 있다고 밝힌다.

崔회장은 건축물이 고급화·대형화 할수록 기계설비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됨은 물론이고 단순지역 냉·난방에서부터 熱併合発電, 太陽熱이용, 대규모 냉동·냉장시설, 각종 Plant건설과 반도체산업, 항공우주산업, 의료산업등의 연구실험시설등 첨단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산업설비등에 전문적인 기계설비 수요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힌다.

『空調분야는 기본적으로 資源과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분야로써 정부의 자원절약정책과도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요』崔회장은 특히 산업설비에 응용되는 空調·冷凍관계설비는 에너지사용량이 생산성 및 원가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 효율성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될 정도라고 강조한다.

崔회장은『건축계획에 따라 건축의 에너지요구량이 결정되므로 애당초 건축물의 설계시 에너지절약방안을 고려해서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施工방법을 정해야 한다』면서『건축설계자와 기계설비설계자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강조하고 施工부문에 있어서도 설계의도에 따른 精密施工과 이에 대한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하며 설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등 운영 관리문제도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또한 空調방식도『각 나라마다의 기후조건과 건축양식 그리고 생활양식의 차이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그나라에 보급화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구조적 특성에 따른 환경시스템에 여러가지 에너지 소비패턴에 알맞는 실내환경 설비가 기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空調 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건축설비를 건축물의 부대설비 - 주로 난방위생설비 -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공조산업분야도 몇몇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다.

崔회장은 우리나라가 60년대까지만해도空調설비를 요하는 대형건물과 공장의 수효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설비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공사비의 5%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으며 그나마 일부설비설계는 외국기술진에 의존하는 정도 였으나 70년대 들어서면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건축붐으로 설비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건축설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설비기술의 과학화도 어느정도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힌다.

『특히 근대적장치공업의 도입과 化学工業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근대적空調방식이 보급됨에 따라 부대적위치로부터 탈피하게 되었으며 전체공사비가운데 설비공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일반 건축물은 20~25%, 호텔·병원등은 35~45%, 그리고 반도체산업의 Clean room설비 등은 50~60%가 차지할 정도로 건축설비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읍니다』崔회장은 우리의 경제발전과 함께 건축설비기술이 어느정도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고급技術人力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분야의 기술인력은 우리나라 전체기술인력의 5%도 안될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의 박사라고하는 技術士도 전체기술사 4천5백여명중 2%도 안되는 70여명(85년말 현재)에 불과한다는 것이다.

崔회장은 이 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분야를 전공하려는 학생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空調분야의 각종기술자격이 단독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타분야의 한 부문으로 속해있는 것도 이 분야 인력배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수한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우리업계의 당면과제입니다. 기술인력의 저변확대가 바로 우리 학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崔회장은 우선 우수기술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적은 人力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기계설비업계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인식제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空気調和·冷凍工学会는「공기조화」「냉동」「건축설비」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기술의 향상발전, 기술자의 지위향상과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어 그동안 학회지발간, 용역사업, 기술진단등 각종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왔으며 회원만도 1,200여명을 거느린 단체로 성장 해왔다고.

『학회 설립 16년만에 처음으로 업계의 技術士로서 학회장직이라는 大任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업계에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리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해결을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崔회장은 학회장 취임후 먼저 理事会에 업계인사들을 대폭 참여시켜 상호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학계·관계·업계 관계자를 초청, 업계 전반에걸친 애로사항과 문제점파악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고 밝힌다.

『学会가 구심점이 되어 업계의 사회적지위향상과 권익옹호에 힘쓰고 自体浄化에도 앞장서 상호공동이익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기술개발분위기의 여건조성과 対정부건의등 추진해 나가겠읍니다』崔회장은 앞으로 産学協同을 강화하여 업계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특히 기업이 회원인 특별회원수를 현 50여개사에서 70여개사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崔회장은 끝으로『愛国의 길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그 분야 발전 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것이 바로 愛国하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공기조화·냉동분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한다.

〈權光仁 記〉